

## 피안

### #1. 골목길, 오후

카메라 가방과 짐가방을 든 연우(28)가 백팩까지 앞으로 멘 채 골목을 두리번거린다. 휴대폰을 보다가 지나가던 행인과 부딪힌다.

연우 :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는 연우. 그때 골목 저편에서 언성이 들린다.

아줌마 : 아이고~ 무시버라! 몸에다 마 낙서를 해놨네!

연우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한다. 붉은 스타킹, 온몸 가득 타투를 한 여자. 피안(28).

아줌마 : 그래 다니는 거 니 부모가 아냐? 몸이 도화지다 도화지!

피안은 가만히 듣고 있다. 그러다 낮게 으르렁거린다.

피안 : 으르르르르.

아줌마 : 뭐.. 뭐고?

피안 : 월! 월월월월!!

놀란 아줌마가 황급히 자리를 뜬다. 연우 눈이 동그해진 채 다가간다.

연우 : 경희...?

머리를 쓸어올리며 피안이 돌아본다.

연우 : 경희 맞지? 나 연우야.

피안, 연우를 위아래로 훑는다.

피안 : 피안, 이름 바꿨어.

### #2. 타투샵, 오후

붉은 조명의 타투샵. 불상, 연꽃, 인센스 등이 장식되어 있는 독특한 분위기. 베드 래핑중인 피안과 카메라 테스트 겸 작업실 인서트 찍는 연우.

연우 : 갑자기 연락했는데 촬영 허락해줘서 고마워. 그냥 평소처럼 편하게 작업하면 돼. (대답이 없다) 근데, 문신.. 이거 타투는 언제부터 한 거야? 부산 내려오고부터?

피안 : (v.o) 더 됐어.

연우 : 난 너 미대 갔다 해서 작가 될 줄 알았는데. 미술은 왜 관뒀어?

피안 : (v.o) 돈 안 돼.

연우 : 이걸 돈.. 좀 벌려?

피안 : (v.o) 응.

연우 : 부모님은 뭐라 안 하셔?

정적. 연우가 돌아보자, 피안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연우를 응시하고 있다.

피안 : 무례하네.

당황하는 연우의 얼굴.

### #3. 타투샵, 오후

베드에 앉아 있는 여자 손님과 전사 준비 중인 피안.

손님 : 저 얼굴은 안 나오는 거 맞죠?

연우 : 네네, 안 나오게 찍어드릴게요.

손님 : (피안을 보며) 근데요, 아직 작업 안 했으니까 도안 바뀌도 되죠?

피안이 작업을 멈추고 돌아본다.

손님 : 남자친구가 커플 타투 하자고 해서요. 이거요! (휴대폰을 내밀며 도안을 보여준다)

피안 : (휴대폰을 보지 않고) 공지에 제 도안으로만 작업한다고 써놨는데.

손님 : 오늘만 해주시면 안 돼요? 돈 더 드릴게요.

피안 : (장갑을 벗으며) 나가세요.

손님 : 네?

피안 : 나가시라고요.

손님은 기분 나쁜 얼굴로 일어나 나간다. 연우, 눈치를 보면서도 계속 촬영한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도안을 뷰파인더로 비춘다.

#### #4. 타투샵 앞 골목, 오후

작업실 바로 앞에 노상방뇨 중인 아저씨. 피안은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녹화 버튼을 누르고 다가간다.

아저씨 : 뭐야, 씨! 이 미친년은?

피안 : 미친년 아니고.

더 다가가 아저씨의 얼굴을 찍는다.

피안 : 쌍년.

연우가 뛰어와 말린다.

연우 : 야, 뭐해? 그만해! 죄송합니다.

피안은 끝까지 찍는다. 황급히 바지를 추켜올리며 욕을 읊조리며 도망치는 아저씨.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시는 피안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는 연우.

#### #5. 타투샵, (둘째 날) 낮

피안이 자리를 비운 사이 어제 촬영본을 보는 연우. 작업실 문을 쾅다 황급히 뛰어나가는 화면. 이어 노상방뇨 소동이 나온다. 연우는 영상을 멈춘다. 잠시 생각하더니 드라이브를 열어 사진 파일 하나를 연다. 교복 입은 연우와 피안이 어깨를 붙이고 웃고 있다. 연우는 사진을 한참 바라본다. 피안의 얼굴을 조금 확대해보다가 복잡한 얼굴로 이내 창을 닫는다.

#### #6. 타투샵, 오후

인터뷰 하기 위해 의자에 앉은 피안.

연우 : 카메라 안 보고 나 보면서 말해도 돼.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피안 : (카메라를 응시하며) 타투이스트 피피안입니다. 불교 베이스로 작업합니다. 잘합니다.

연우가 찍는 카메라 속 피안을 보여주는 화면.

연우 : (v.o) 타투는 아무래도 불법이라 아직 사회적인 인식이 좋진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안 : 신경 안 써요.

연우 : (v.o) 좀만 길게 말해줄래?

피안 : 신경 좇도 안 씁니다.

연우, 카메라 화면 너머 피안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 내쉬며 말한다.

연우 : 이러면 인터뷰 못 써.

피안 : 근데, 너 감독이라면서. 조사도 안 하고 와?

연우, 당황한 얼굴이다. 피안 연우를 한심하게 쳐다보고, 일어서며 말한다.

피안 : 뭘 알고나 해.

#7 골목길, 오후

담배를 꺼내는 연우, 휴대폰이 울린다.

연우 : 여보세요? 네, 선배. 아직 인터뷰는 못 땀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재밌는 건 좀 나올 것 같아요. 알죠, 네. 걱정마세요.

통화를 끊는다. 불을 붙이려는데 라이터가 켜지지 않고, 한숨 쉬는 연우.

#8 작업실, 오후

작업실로 들어서는 연우의 얼굴에 종이를 던지는 피안. 연우, 인상을 찌푸리며 종이를 집어 든다. [정상과 궤도 밖의 삶]이라고 적힌 기획서 타이틀이 보인다. 당황하는 연우.

연우 : 이거는, 그냥 기획이야. 기획.

피안, 켜져 있던 연우 노트북을 재생하는데 편집본이 나온다. 피안의 행동을 자극적으로 묘사한 편집본. 피안, 아무 말 없이 연우를 보고, 연우도 말을 잇지 못한다. 그때 피안이 연우의 노트북에서 옮겨놓은 작업 파일을 전부 클릭하고, 파일을 삭제한다. 연우, 너무 놀라 외마디 비명을 지른다.

연우 : 야!!

피안, 밖으로 나간다.

#9 타투샵 앞 골목, 오후

비가 오는 골목. 연우가 피안을 쫓아 나온다.

연우 : 너.. 너 미쳤어?

피안 : 편집한 거 보니까 아는 것 같던데?

연우 : 너 진짜!!

연우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열 받는데 화를 못 내는 연우. 그때 행인이 둘을 흘끔 보자 그 시선을 의식하며 연우가 말한다.

연우 : 됐다, 그만하자.

피안 : 시작도 안 해놓고 뭘 그만해?

그때 피안의 손에 들린 sd 카드가 보인다.

연우 : 그것도 뺏어?

연우, 놀라 다가가며 sd카드를 낚아채려 하는데 sd카드는 날아가고 피안의 긴머리가 손에 걸리고 만다. 당황한 연우. 그때 피안이 연우의 머리를 움켜쥐는다.

연우 : 이거 안 놔?

피안 : 네가 먼저 잡았잖아?

연우 : 야이 씨!

두 사람이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육탄전을 벌인다. 씩씩거리는 소리와 비명이 뒤섞인다. 그때 피안이 연우의 뺨에 상처를 내고 만다.

연우 : 아!

피안, 손을 놓고 연우 얼굴을 보는데 피가 흐르고, 눈물과 피가 섞여 얼굴이 엉망이다.

피안 : 너도 한 대 쳐.

피안, 가만히 뺨을 내민다. 연우, 우는 얼굴로 망설임 없이 뺨을 때린다. 둘이 서로를 마주 본다. 호흡이 거칠다. 피안이 빨개진 뺨으로 말한다.

피안 : 근데, 백업 있지 너?

연우 : ...어.

피안 : 됐네, 그럼.

#10 타투샵, (셋째 날) 낮

청소 하던 피안, 연우에게 밴드를 내민다. 연우, 밴드를 받아들고 거울을 보며 붙인다. 그러다 벽에 붙은 연꽃 도안으로 시선이 향한다.

연우 : 이런 건 얼마 해?

피안 : (작업실 청소하며) 삼십.

연우 : 비싸네.

피안 : 참 나.

연우가 피식 웃는다.

#11 타투샵 앞 골목, 저녁

연우, 카메라 가방을 고쳐 맨다.

연우 : 다음 달에 애들이랑 하늘이네 집들이 가기로 했는데, 올래?

피안 : 그래.

연우 : (휴대폰을 보며) 택시 왔다, 가볼게.

연우, 걸어가다 뒤돌아 손을 흔드는데, 손목에 붉은 연꽃이 새겨져 있다. 피안, 열게 미소 띤 얼굴로 손을 흔든다.